

인터뷰

嚴大羽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 국립공원관리책임 맡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나 일화가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수려한 경관지이며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에 국립공원 관리 초점을 맞춰 백년대계를 초월하여 영원한 대계를 보고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확고한 기반을 다질 생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사계절 변화에 따라 산과 들의 나무와 곡식이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경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친환경적 마

인드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에 뛰어 들게 된 것은 1990년 군산에 동양화학 포스젠 독가스 공장 건설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교도소 독방에서 6개월의 옥고를 치렀지만 결국에는 그 운동이 성과를 거두게 되어 독가스 공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설계변경 등 안전성을 우선으로 병커를 씌운 시설로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옥고 덕분에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고, 「다윈의 진화론」 등 환경 전문서적을 섭렵하면서 확고한 환경보존의지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간 전개해 온 환경운동 경험을 소개해 주십시오.

- ◇1990년부터 현재까지 녹색교통운동 중앙 이사를 맡아 오면서 녹색 교통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UN 세계환경대회에 NGO(비정부기구) 한국대표로 서울대 유근배 교수 등과 함께 참여하였고, 아마존강 지역의 밀림지대를 답사하여 도로개설과 벌목 현장을 목격하고 관계 당국자들에게 세계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훼손에 대하여 세계 NGO대표들과 함께 시위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 또한, 1996년 터어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UN HABITAT II(주택 환경세계대회)에 NGO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보호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였고 이런 소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는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환경정보연구소

(K.G.R.I)를 설립하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당의 환경정책을 입안하였고, 이러한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1996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위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지금껏 국립공원은 개발적인 측면에 강조되어온 감이 있었습니까. 지나간 공단의 역사와 운영방침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 좋은 지적입니다. 공단이 설립된지 11년째입니다. 그간 공단의 전임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700여명의 임·직원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자연휴식년제 도입, 무분별한 취사·야영금지 조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생태계의 적극적인 보호의지와 예산투자 및 시행실적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용적인 측면에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탐방편의 시설인 진입도로, 주차장, 야영장 등의 설치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나와 같은 환경운동가들이 공원정책 입안 및 시행에 있어 배척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향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방침은 무엇입니까?

또한 비무장지대와 갯벌지역·울릉도·독도지역의 국립공원화에 대한 복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국립공원의 관리는 무엇보다도 자연상태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소의 신념을 바탕으로 올바른 공원관리를 위한 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가를 현명하게 모색하는 것이 우리 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제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아름다운 산, 맑은 물이 흐르는 강뿐만 아니라 바다의 갯벌까지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20개 국립공원 이외에 50년간 자연생태계가 유지되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일원과 서해안의 갯벌지역 및 울릉도·독도를 연결하는 지역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북한 의 금강산, 백두산 등 자연생태계 우수지역도 선연적 개념의 국가공원으로, 세계적 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기존의 국립공원도 공원입구 주변의 개활지를 그 지역의 특성을 상징화 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산정상이나 계곡 깊숙이 까지 가지 않아도 자연을 느끼고 쉬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주나 산정상, 계곡 깊숙이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수용력 한계(Carrying Capacity)를 고려한 예약입장제를 시행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종다양성의 으뜸 지역입니다. 이러한 국립공원을 『한국적 특성을 살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국립공원의 세계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외화기득율을 높이는 관광사업에 국립공원이 앞장서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불교계와의 해묵은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합동징수를 둘러싼 마찰이나 민원은 근본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국립공원내의 사찰에는 1,600여년에 걸쳐 우리 민족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온 불교 문화재의 보고로서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공단으로서도 불교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의견을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협력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사회전반에 일고 있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 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정비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하단체들도 구조조정 및 내실 관리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고통을 가급적 빨리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털어내고 개인이

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있는 공원관계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자들에 대한 나의 소신은 “열심히 일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익 되도록 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또한, 공단은 11년전 발족 당시 약 40%의 인원을 줄여 이미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광활한 면적의 공원자원과 수많은 등산로 순찰을 통한 공원관리에 있어 관리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호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 책임자로서 공원관리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공원협회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와 공조체제에 관해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구체적인 협력관계 발전에 관해서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공단과 협회는 자연공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선도하는데 있어 수레바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이용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